梅泉 黃玹의 陸游 次韻詩 연구

장 람*

차 례

1. 머리말
2. 황현의 육유에 대한 인식과 차운시 현황
 2.1. 육유에 대한 문학적 인식
 2.2. 육유시에 대한 차운 현황
3. 황현의 육유 차운시 주제 양상
 3.1. 향촌 생활의 여유와 한적
 3.2. 사대부적 이상의 좌절과 자조
 3.3. 비판적 현실 인식과 우국적 정서 토로
4. 황현의 육유 차운시의 문학적 의의
5. 맺음말

| 국문초록 |

본고는 매천 황현의 중국 문인 차운시 가운데 특히 육유 차운시에 주목하여 고찰하였다. 매천은 일생동안 많은 시작품을 남겼는데 차운시의 검토를 통하여 그의 시적 수련과정을 살펴볼 수 있으며, 나아가 그의 시세계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다. 주로 논지는 아래와 같다.

관련된 시문 분석을 통하여 황현이 현란한 언어적 기교와 수사 없이 시의를 개성적으로 표현하는 육유의 작시 방식을 추구하고 특히 웅걸한 기상의 육유시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황현의 육유시에 대한 차운 현황을 살피면서 크게 세 가지 특징으로 정리해 보았다. 첫째는 칠언율시가 많은 점이다. 그가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옛 시인의 뛰어난 율시에 대해 끊임없이 차운하면서, 특히 육유의 칠언율시를 모범으로 삼아 자신의 칠언율시를 수련하는 데에 활용하였다. 둘째는 초학자의 시작 수련에서 많이 운용하는 점이다. 마지막은 육유의 재촉시기의 시를 많이 차운하는 점이 들 수 있다.

이어서 황현의 육유 차운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분석하고 드러나는 주제 양상을 고찰

* 전남대학교

www.kci.go.kr

하였다. 각각 향촌 생활의 여유와 한적, 사대부적 이상의 좌절과 자조 그리고 비판적 현실 인식과 우국적 정서 토로로 분류하여 살펴보았다. 향촌 생활을 즐기면서 한가롭고 소박한 향촌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황현의 모습을 살필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평화로운 일상도 균열이 일어날 때가 종종 있는데, 문득 '대부(大夫)'로서의 좌절을 자각할 때이다. 더 나아가 황현은 당시의 혼란한 정치 현실을 냉철하게 주시하고 있었다. 그는 부패한 왕실과 권력층의 비리를 신랄히 비판하면서 지식인으로서 시대적 소명을 다하려고 하였다. 황현의 육유 차운시의 주제 양상을 고찰하면서 그의 이런 심경 변화 또한 엿볼 수 있다.

이어서 황현의 육유 차운시 중에 육유의 재촉 시기 작품에 대한 차운에 초점을 두고 차운시와 원운시를 비교하면서 황현의 차운 경향을 살펴보았다. 먼저 육유에게 재촉 시기의 의의를 밝힌 다음에 황현은 이 시기의 육유시와 어떤 점을 공명하여 지은 것인지를 파악하였다. 황현이 학문적 능력과 시적 재능이 있음에도 정치적 기회를 얻지 못했던 육유의 처지에 공감되고 정서적 교감이 형성되어 육유의 많은 재촉 시기 작품을 차운한 것으로 보인다.

그 동안 황현의 중국 문인 차운시에 대한 연구는 그 작품의 주제나 경향성에 대해서는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나, 이와 같이 시인 간의 정서적 유대, 감성적 공감의 측면에서 차운시를 검토한 경우는 드물었다. 이러한 방식으로 황현의 다양한 중국 문인 차운시를 살핀다면 시공의 경계를 넘나드는 차운시만의 독특한 문학적 특성을 살필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핵심어 : 황현, 육유, 차운시, 주제 양상, 정서적 교감

1. 머리말

매천 황현(1855～1910)은 구한말 문인으로 일찍 벼슬을 포기하고 구례로 낙향한 뒤 강학과 학문 탐구로 평생을 보냈다. 특히 40대에 구안실(苟安室)에 머물면서 작시 활동을 활발히 하였는데, 황현이 일생 동안 창작한 시는 무려 2,000여 수[1]에 달한다. 이 가운데 그가 남긴 한시 작품 중 두드러진 점은 차운시(次韻詩)가 매우 많다는 것이다.

차운은 원운시(原韻詩)의 운자(韻字)를 순서까지 그대로 따라 시를 짓는 창

1) 김영붕, 「黃梅泉 詩文學 硏究」, 전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4, 14～16쪽.

www.kci.go.kr

작 방법이다. 대체로 시인이 차운시를 짓는 것은 원운 시인의 창작 정신을 비판적으로 체득하고 그 독창적인 면모를 수용하기 위해서다. 시인은 차운을 통하여 원운시를 이해하고 그 문학적 성과를 흡수한다. 나아가 자신의 관점에서 대상을 재해석하고 새로운 시적 경계를 여는 것이다.

황현 또한 450여수의 많은 차운시를 남겼다. 이러한 차운시 검토를 통하여 그의 시적 수련 과정을 살펴볼 수 있으며, 나아가 황현의 시세계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황현의 중국 문인 차운시는 347수인데[2] 황현시 전체에 비해 결코 적지 않은 분량이다. 그중에서도 중국 송나라 육유(陸游)의 시에 대한 차운은 71수에 달하고 있어, 육유에 대한 황현의 관심이 컸음을 알 수 있다.

황현의 육유 차운시에 대한 선행 연구는 이병기부터 시작되었다. 이병기[3]는 황현의 육유와 소식의 시에 대한 차운시를 설명하면서, 그가 주로 중국 송시를 차운하는 경향이 있었음을 처음으로 포착하였다. 장인진[4]은 조선조 문인의 육유시 수용 양상을 고찰하고 황현이 육유시를 차운한 까닭은 그의 투철한 민족의식과 애국사상을 숭모하였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해 기태완[5]은 황현의 정치·사회에 대한 관심은 이미 뿌리 깊은 것으로 육유의 애국정신과는 무관한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차운의 대상이 된 육유의 원운시는 애국적 정서가 드러나기는 하나 거의 한적한 생활을 소재로 한 시들이라고 하면서, 황현의 육유시에 대한 관심은 한적한 생활을 내용으로 한 칠언율시였다고 하였다. 황수정[6]은 황현의 시작 태도 연구에서 육유시의 수용과 청신의 미학을 고찰하고, 육유시를 차운한 황현의 시적 경향이 '한적세니(閒適細膩)'적이라고 하였다. 이는 육유의 칠언율시를 모범으로 삼아 '한적세니'적인 내용의 시

2) 장람, 「梅泉 黃玹의 中國文人 次韻詩 연구」,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5, 3쪽.
3) 이병기, 「황매천시 연구」,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3, 39~47쪽.
4) 장인진, 「조선조 문인의 육방옹시 수용에 대하여」, 『한문학연구』 제6집, 계명한문학회, 1990, 203~207쪽.
5) 기태완, 「매천시 연구-시의 수련과 영향관계 및 그 풍격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8, 49~58쪽.
6) 황수정, 「梅泉 黃玹의 詩文學 硏究」, 조선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 265~296쪽.

www.kci.go.kr

에 주목하였다는 기태완의 논의를 수용한 것이다. 김정환[7]은 황현의 육유 차운시에는 애국적이거나 한적한 시가 모두 포함되어 있으나, 정작 그가 육유시를 차운할 때에는 대체로 애국적인 것과는 무관하게 받아들였다고 하였다.

기존 연구들을 살펴보면 황현의 육유시 차운 경향을 다양한 시각에서 접근했다는 긍정적인 면이 있다. 그러나 이들 연구는 연구 대상을 일부의 작품에 한정함으로써 황현의 육유 차운시의 전체적인 면모를 살피는 데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그 문학적 특성을 탐색하기 위해서는 황현의 육유 차운시 전체를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본고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갖고 황현의 차운시와 육유의 원운시를 비교하면서 고찰하고자 한다. 먼저 2장에서는 황현의 육유에 대한 문학적 인식을 파악한 다음에 황현의 육유 차운시의 현황을 살펴보면서 드러나는 몇 가지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 3장에서는 황현의 육유 차운시의 주제 양상을 살펴볼 것이다. 4장에서 황현의 육유 차운시의 문학적 의의는 육유의 원운시를 살펴봄을 통하여 정리해 보고자 한다.

본고는 전주대학교 호남학연구소에서 출판한『황현전집(梅泉全集)』5권 중에 있는 황현의 육유시에 대한 차운시를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8] 육유의 원운시는『검남시고(劍南詩稿)』[9]에서 황현 차운시와의 운자 대조를 통하여 찾아내었다. 이와 같은 황현의 육유 차운시 연구는 시인으로서 황현의 면모와 그의 시세계를 보다 다각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

7) 김정환,『梅泉詩派研究』, 경인문화사, 2007, 175~177쪽.

8) 황현의 시문(詩文)에 대한 번역은 필자가 졸고(장람,「梅泉 黃玹의 中國文人 次韻詩 연구」,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5)에서 기존 번역을 참고하여 필자의 이해를 토대로 일부 수정해서 제시한 바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인용한 황현시는 원천 출처만 표시하고자 한다. 이 외에 본고에서 새로 변역한 시는 김영붕의『역주 매천 황현 시집』(상·중·하, 보고사, 2007),『역주 황매천시집』(속집·후집, 보고사, 2010), 기태완의『황매천시연구』(보고사, 1999), 한국고전종합DB의『매천집』을 참고하여 필자의 이해를 토대로 번역하였다.

9) 陸游,『劍南詩藁』,『陸放翁全集』(中), 中國書店, 1997.

www.kci.go.kr

2. 황현의 육유에 대한 인식과 차운시 현황

2.1. 육유에 대한 문학적 인식

황현은 소천(小川) 왕사찬(王師瓚)과 함께 시를 논하면서 스스로 송시를 좋아한다고 밝힌 바 있다.[10] 김택영은 황현이 "문장을 쓰는 것보다 시에 더욱 조예가 깊어 소식과 육유의 기품이 있다."[11]라고 평하기도 하였다. 또한 황현의 서울 유학시의 문우(文友) 박문호(朴文鎬)는 황현의 시가 소식과 육유를 본받았다고 하였다.[12] 이밖에 강겸(江謙)과 황현의 동생인 황원(黃瑗)도 황현의 소식과 육유의 시에 대한 관심을 밝힌 바 있다.[13] 이를 통하여 황현이 평소에 송시에 대한 관심이 많고, 특히 소식과 육유의 시를 더 많이 배운 것을 짐작할 수 있다. 황현은 소식의 시를 차운할 때 주로 소식의 호방한 기세를 담고 있는 고체시에 관심을 두고 차운하였는데 총 7제 12수를 차운하였다.[14] 이에 비해 육유 차운시는 10제 71수로 소식 차운시보다 약 6배가 더 많다. 이를 통해 황현의 육유시에 대한 관심이 매우 깊음을 볼 수 있다.

육유(1125~1210)는 자가 무관(務觀), 호는 방옹(放翁)이며 중국 남송(南宋)의 대표 시인이다. 육유는 중원을 수복하기 위해 금나라와의 무력투쟁을 주장했던 주전파(主戰派)의 한 사람으로서 정치적으로 많은 핍박을 받았으나, 죽을 때까지 자신의 애국적 의지를 꺾지 않았다. 또한 현존하는 육유의 시[15]는 9300

10) 余嘗好讀宋詩而不屑晩唐 小用不以爲然 故又申前意(黃玹, 〈和小川論詩六絕〉 自注, 『梅泉全集』 卷1, 85쪽)

11) 所作爲文章 於詩尤深 有蘇子瞻陸務觀之風(金澤榮, 「本傳」, 『梅泉全集』 卷1, 26쪽)

12) 爲詩法蘇陸 文則逼魏禧侯方域(朴文鎬, 「梅泉黃公墓表」, 『梅泉全集』 卷1, 21쪽)

13) 滄江老於詩文, 謂君於詩有別才, 善學蘇·陸, 淸警富健其有焉(江謙, 「梅泉集」序, 『梅泉全集』 卷1, 16쪽); 詩在蘇陸之間, 而纖巧壯麗, 隨意能之(黃瑗, 「行狀抄」, 『梅泉全集』 卷3, 15쪽)

14) 장람, 앞의 논문, 15쪽 및 29~37쪽.

15) 육유의 작품 중 그의 만년에 전원생활을 하면서 지은 시가 절반 이상 차지한다. 비록 우국시들이 작품의 총수에 있어 다수를 차지하지는 않으나, 우국은 시대구분을 뛰어넘는 전시기적으로 의미를 지니는 주제였다고 말할 수 있다(주기평, 『육유시가연구』, 역

www.kci.go.kr

여 수에 달해 중국 고대 문학사상 최다작의 시인으로 꼽힌다.

육유의 시세계는 크게 세 시기[16]로 구분된다. 그는 젊은 시절에 강서시파(江西詩派)의 영향을 많이 받아 독특함과 정교함을 추구하고자 하였다. 중년에는 촉(蜀, 사천성(四川省)의 별칭)에 들어가 종군하면서 시야를 넓히고 다양한 경력을 쌓으며, 조국에 대한 뜨거운 감정과 울분한 기개가 생기게 되어 시 창작에 웅장하고 분방한 풍격이 드러난다. 만년에는 고향에 은거하여 전원생활을 하면서 평안하고 한적한 시풍을 이루었다.[17] 청나라 시인 조익(趙翼)[18]은 중국 역대 유명한 시인의 시를 체계적으로 비평한 책인 『구북시화(甌北詩話)』에서 다음과 같이 육유시를 평가하였다.

> 육유는 율시에 능했으니, 이름난 장(章)과 빼어난 구(句)가 자주 보이고 연이어 나와서 사람들로 하여금 호응할 겨를도 없게 하였다. 전고를 반드시 절실하게 했으며 대구를 만든 것도 반드시 정교하였다. 뜻을 찾지 않음이 없었으나 섬세하고 교묘한 데로 떨어지지 않았다. 말을 새롭게 하지 않음이 없었으나 또한 꾸밈을 일삼지도 않았으니, 진실로 옛 시인들에게서 보지 못한 바이다.[19]

조익의 평가를 보면 육유가 철언율시에 뛰어나고 전고와 대우의 기법을 잘

락, 2010, 60~61쪽 참조).

16) 蔣和森, "陸游" 條, 『中國大百科全書·中國文學卷』, 中國大百科全書出版社, 1986. 첫 번째 시기는 소년부터 45세 입촉(入蜀)하기 전까지 약 30년 동안인데, 이 시기의 시 중 대략 300여수의 시가 전해지고 있다. 두 번째 시기는 46세 때 입촉한 이후부터 사천(四川), 복건(福建) 등지에서 관직생활을 했던 65세까지의 20년의 기간인데 약 2400여 수의 시가 전해지고 있다. 이후 관직생활을 마무리하고 산음(山陰)에서 한거(閑居)했던 20년의 기간을 세 번째 시기로 구분 하였는데, 이 시기의 시는 약 6500여 수가 전해지고 있다.

17) 嚴修, 『陸游詩集導讀』, 巴蜀書社, 1996, 46~47쪽 참조.

18) 조익(趙翼)은 호가 구북(甌北)이며 중국 청나라의 대표 시인이자 비평가로서 원매(袁枚), 장사전(蔣士銓)과 함께 건륭삼대가(乾隆三大家)로 칭해진다. 그의 『구북시화(甌北詩話)』는 청나라의 대표적인 시화 저작 중의 하나다.

19) 放翁詩以律師見長, 名章俊句, 層見疊出, 令人應接不暇. 使事必切, 屬對必工; 無意不搜, 而不落纖巧; 無語不新, 亦不事塗澤; 實古來詩家所未見也(조익, 송용준 역해, 『甌北詩話』, 서울대학교출판부, 2009, 360~361쪽)

www.kci.go.kr

활용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억지스러운 기교와 수식 없이 의미를 창출하는 창의적 시인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황현의 육유에 대한 평가도 조익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의 육유에 대한 인식은 〈검남집을 읽다(讀劍南集)〉을 통해 잘 드러난다.

我固愛宋詩	나는 본디 송시를 좋아하는데
在宋九愛陸	송나라 중에 육유를 가장 좋아하네
無物不能肖	사물을 묘사하지 못하는 게 없고
萬語皆可讀	모든 시구는 다 읽을 만하네
爛套毋遽嗤	속된 수법이라 비웃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妙處正在熟	묘처는 바로 난숙한 데 있다네
冗瑣雖錯出	번거롭고 자질구레한 것은 비록 엇갈려 나타나지만
雄傑更有孰	웅걸한 점은 누구도 비할 수 없네
譬彼滄海中	예컨대 저 푸른 바다 속에
汪濊涵百族	깊고 넓어 온갖 어족을 포함하고
光怪蛟螭騰	다채로운 교룡이 뛰어오르고
蠕屈蝦蟹伏	꿈틀거리고 움츠린 새우와 게가 엎드려 있네
豈我心膽薄	어찌 내 심지를 깔보랴
一紙首屢縮	한 편의 글을 쓰는데도 늘 소심하네
俗子妄吹毛	속인들은 함부로 결점을 꼬치꼬치 찾아내고
祗足誇眼肉	다만 식견 없는 자들이 안목을 자랑하네
詩本言志已	시는 본래 의지를 표현할 뿐인데
其道無繁目	그 방법에 있어서는 복잡한 조목이 없네
後來列衆體	나중에 여러 체제 나누어
鞅輪競分逐	끈과 바퀴 다투어 서로 쫓아가네
譬人能語後	비유컨대 사람이 말을 할 수 있는 후에
辯訥始各局	말 잘하고 더듬는 것 비로소 구별된다네
使有生而啞	만일 태어날 때부터 소리 나지 못하면
何由辨麥菽	무슨 연유로 보리와 콩을 구별하는가
如欲成好詩	만약 좋은 시를 창작하고 싶다면

www.kci.go.kr

勿憚如語錄　　어록과 같은 말도 꺼리지 마오
君看石帆老　　그대 석범 늙은이를 보니
千載殿坡谷　　장구한 세월에 소동파와 황산곡을 이어 뛰어나네[20]

이 시는 황현이 스스로 송나라 시인 가운데 육유를 높이 평가하고 그에 대한 관심을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표현한 것이다. 황현은 육시의 뛰어난 묘사, 웅장함, 다채로움 그리고 간결함을 높이 평가하였다. 앞에서 언급하였듯 중년의 입촉(入蜀) 시기에 육유의 시가 웅장하고 분방한 풍격을 나타낸다고 평가받는 것처럼 황현도 이 시기의 육유시를 더 높이 평가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복잡한 조목[繁目]이 없는 간결하고 세련된 표현, 인위적 기교를 가하지 않는 '어록(語錄)'[21]과 같은 질박한 언어 사용 등을 높이 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육유시처럼 어록 같은 말을 꺼리지 않으면 좋은 시를 창작할 수 있다고 하는데, 시 창작에 있어 억지로 수식하지 않으며 기교 없이 생동감 있게 해야 되는 것이다.

또한 황현은 논시(論詩)를 통하여 육유시를 논하기도 했다.

纈眼空華鏡裏垂　　눈을 현혹시키는 눈송이가 거울에 비추는데
羚羊掛角本無枝　　영양의 뿔이 나뭇가지처럼 나무에 걸려 있네
放翁老去文心細　　방옹은 늙어 갈수록 문심이 세심해졌는데
解脫金丹只自知　　환골탈대를 또한 스스로 깨쳤다네[22]

황현은 육유의 시를 "영양괘각(羚羊掛角)"과 "해탈금단(解脫金丹)"으로 평하였다. "영양괘각"은 엄우(嚴羽)의 『창랑시화(滄浪詩話)』에서 빌려온 말[23]로 육

20) 黃玹, 〈讀劒南集〉, 『梅泉全集』 卷3, 249쪽.
21) '어록'은 옛날 문체 중의 하나인데 선교, 강학, 논정(論政)과 교유할 때 쓰는 문답구어이다. 이러한 글은 잘 윤색하지 않는다. 孔子의 『논어』는 바로 중국에 최초의 어록 문체의 작품이다.
22) 黃玹, 〈丁掾日宅寄七絕十四首依其韻戲作論詩雜絕以謝〉 제5수, 『梅泉全集』 卷3, 53쪽.
23) 성당(盛唐)의 여러 시인들은 오로지 흥취에 주력하여, 그들의 시는 영양(羚羊)이 뿔을

www.kci.go.kr

유시에서 많은 글자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풍류를 다하는 절묘함을 찬탄한 것이다.

'해탈금단'은 '환골탈태(換骨奪胎)'를 말하는 것인데, 이는 송나라 승려인 혜홍의 『냉재야화(冷齋夜話)』에 나오는 말[24]로 옛 사람의 시를 모방해도 단지 모방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개성으로 발전시켜 그 내용까지 새롭게 변화된 경우를 가리킨다. 황현은 육유가 나이 들수록 점점 자신의 개성을 형성한다고 보고 있다. 곧 육유가 옛 전고나 시구의 모방에만 그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일가(一家)를 이루는 독창성을 구현했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육유가 중년 이후에 점점 강서시파의 영향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시세계를 구축하였다는 조익의 견해[25]와 비슷하다.

지금까지 황현의 육유에 대한 문학적 인식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황현이 평소 송시를 즐겨 읽었고, 특히 웅걸한 기상의 육유시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점을 고려했을 때 황현이 현란한 언어적 기교와 수사 없이 시의를 개성적으로 표현하는 육유의 작시 방식을 수용했을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2.2. 육유시에 대한 차운 현황

황현이 육유의 시를 차운한 창작 현황은 〈표 1〉과 같다.

나무에 걸은 것처럼 자취를 찾을 수가 없다. 그래서 그들 시의 절묘함은 투철(透徹) 영롱(玲瓏)하지만 가까이 다가설 수가 없다. 마치 공중의 소리와 같고, 외형 속의 색깔과 같으며, 물속의 달과 거울 속에 허상과도 같아서, 언어는 다했어도 그 의미는 다함이 없다(盛唐諸人惟在興趣, 羚羊掛角, 無跡可求. 故其妙處透徹玲瓏, 不可湊泊, 如空中之音, 相中之色, 水中之月, 鏡中之像, 言有盡而意無窮(-嚴羽, 〈詩辨〉, 김해명·이우정 옮김, 『滄浪詩話』, 한국학술진흥재단, 2001, 59~60쪽 및 66쪽)).

24) 그 뜻을 바꾸지 않고 그 시어를 만드는 것을 환골법이라 하고, 그 뜻을 모방하여 모양을 그려내는 것을 탈태법이라 한다(然不亦其意而造其語, 謂之換骨法, 窺入其意而形容之, 謂之奪胎法.)-惠洪, 『冷齋夜話』; 황수정, 앞의 논문, 268~269쪽 재인용).

25) 放翁詩凡三變 宗派本出於杜 中年以後 則益自出機杼 盡其才而後止(조익, 송용준 역해, 앞의 책, 354쪽)

www.kci.go.kr

표 1. 황현의 육유 차운시 현황

창작시기 /연령	1895년 41세	1897년 43세	1899년 45세	1902년 48세	1904년 50세	1905년 51세	총수
형식 /작품수	칠언율시 6수	칠언율시 61수	칠언율시 1수	오언율시 1수	칠언율시 1수	칠언율시 1수	71수

황현의 육유 차운시 71수를 살펴보면 몇 가지 두드러진 점이 있다.

첫째, 황현은 육유시를 차운할 때 칠언율시 형식을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다. 황현의 육유시에 대한 11제 71수의 차운시 가운데 단 1수만이 오언율시이고, 나머지 모두 칠언율시이다. 황현의 율시, 특히 칠언율시에 대한 애착을 느낄 수 있는데, 율시에 대한 그의 인식은 초학자들에게 율시를 가르치기 위하여 역대 한시에서 연구(聯句)만을 모아 만든 『집련(集聯)』이라는 교재에 잘 드러난다. 황현은 이 책의 서문에서 "율시는 시 중에서 가장 정밀한 시체(詩體)로서, 특히 그 가운데 두 연의 정밀한 대우(對偶)가 요구되기 때문에 창작이 어렵고 역대 한시 작가들이 가장 고심하며 심혈을 기울이는 부분이기도 하다."라고 하였다.[26] 그러면서도 황현은 근체시 중에서 칠언율시를 가장 어렵다고 여기기도 했다.[27]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남긴 시 작품의 시체를 보면 칠언율시가 제일 많다.[28] 즉 황현은 쉬운 시체로 시를 짓기보다는 오히려 다소 까다롭고 어려운 작법인 율시를 활용해서 시적 성취를 이루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아마도 율시에 대한 수련이 필요했을 것이다.

한편, 육유의 시에서도 칠언율시가 주류를 차지하고 있다.[29] 육유에 대한

26) 詩屢變而爲律詩, 律固詩最精者也. 而聯句加以對偶, 盖尤精, 且難工也. 故名篇秀句, 多以聯傳. 工於聯, 則起結亦隨之, 所以初學者, 不得不講究也(黃玹, 「集聯序」, 최승효 편, 『黃梅泉 및 關聯人士 文墨萃編』 上卷, 未來文化社, 1985, 66~67쪽)

27) 小技猶難七字詩(黃玹, 〈歸家復拈陸律爲夏課〉 제28수, 『梅泉全集』 卷1, 565쪽)

28) 김영봉의 연구에 따르면, 황현이 창작한 2,027수 가운데 근체시가 1794수가 되어 비율이 88.5%나 되고 있다. 근체시 가운데 칠언율시가 48.1%를 차지하고 있으면, 황현시 전체에서 칠언율시가 차지하는 비율은 42.6%이다. 이 통계에서 본 바와 같이 황현은 칠언율시를 가장 즐겨 창작한 것을 알 수 있다.(김영봉, 앞의 논문, 17~18쪽)

www.kci.go.kr

역대 비평가의 의 평가를 보면, 그의 시 가운데 칠언율시가 가장 뛰어났음을 확인할 수 있다.

> 방옹의 칠언율시는 대구가 짜임새가 있고, 고사도 적당하게 사용하여 당시에 그와 겨룰 만한 사람이 없을 정도이다.[30]

> 진우(陳訏)는 방옹이 일생동안 칠언율시에 정력을 다 쏟았기 때문에 전집(全集)에서 가장 많고 제일 좋다고 하였다.[31]

이와 같은 뛰어난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황현은 육유의 칠언율시에 관심을 가졌고, 그의 칠언율시를 모범으로 삼아 자신의 작시 수련에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황현은 초학자들의 시작 수련에서 육유의 시를 주로 운용하였다. 〈서당의 여러 친구들과 함께 일과로 방옹시를 차운하다(與塾中諸友課日次放翁韻)〉, 〈아이들 과제로 차운하다(次兒課韻)〉, 〈글방의 여러 친구들과 함께 과제하는 날에 방옹집을 차운하다(與塾中諸友課日次放翁集)〉, 〈집으로 돌아와서 다시 육유 율시를 뽑아 여름 과제로 삼다(歸家復拈陸律爲夏課)〉등의 시 제목에서 이러한 점을 여실히 살필 수 있다. 이 시들은 황현이 만수동 구안실에 살았을 때 제자들이나 문우들과 공부하면서 지은 연작시로서 육유의 칠언율시를 일과(日課)로 내어주었음을 알 수 있다. 황현은 문인들에게 육유시를 칠언율시의 전범으로 삼아 표현 방법을 체득하도록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32] 때문에 황현시파(梅泉詩派)의 많은 문집에서 육유 차운시와 『독검남집』

---

29) 주기평, 앞의 책, 307쪽.

30) 放翁七言律 對仗工整 使事熨貼 當時無與比埒(沈德潛, 『說詩晬語』, 정중호 편정, 『淸詩話』하, 藝文印書館, 1977, 670쪽; 장인진, 앞의 논문, 187쪽 재인용)

31) 陳訏曰 放翁一生精力 盡於七律 故全集所載 最多最佳(近藤元粹 選評, 『陸放翁詩醇』, 崇山堂, 明治42, 卷六, 66쪽; 장인진, 앞의 논문, 187쪽 재인용)

32) 김정환, 앞의 논문, 22~23쪽, 176쪽 및 181쪽. 김정환은 황현의 문인 50여명 정도 파악했고 문집 등을 조사하여 표로 정리한 바 있다. 이 표에서 제시한 작가들의 문집 속에는

www.kci.go.kr

등을 늘 볼 수 있다.

셋째, 황현은 그의 나이 43세 때 집중적으로 육유의 시를 차운한 것이다. 황현은 41세 때부터 육유시를 차운하기 시작하였는데, 이때 3제 6수를 창작하였다. 이후 43세 때 3제 61수의 차운시를 짓고 45세, 48세, 50세, 51세에 각각 1수를 더하였다. 그런데 이 시기에 창작한 차운시와 육유 원운시의 창작 시기를 대조해 보면 주목할 만한 점이 있다. 육유의 『검남시고』 '연도별 통계표'[33]에 따르면 황현의 차운시 71수 중 50수의 원운시가 육유의 나이 46세부터 53세 때 지은 시이다. 이 시기는 육유가 9년 동안 촉 땅에서 활동했던 이른바 재촉(在蜀) 시기에 해당한다. 육유의 재촉 시기는 그의 일생에서 매우 중요한 시기이며, 시 창작에서도 큰 변모를 보였던 때이기도 하다. 요컨대 황현은 재촉 시기 육유의 시 작품을 무려 50수나 차운한 것이며, 이는 그가 이 시기 육유의 문학 활동을 깊이 주목했음을 보여준다. 재촉 시기의 육유와 43세의 황현 사이에 매우 큰 정서적 교감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황현의 육유 차운시 주제 양상

3.1. 향촌 생활의 여유와 한적

황현은 1890년부터 1902년까지 12년 동안 구례 만수동 구안실에서 제자들을 양성하면서 많은 벗들과 교유하였다. 황현의 육유 차운시도 거의 구안실에 생활하면서 지은 것이다. 다음 시는 연작시 〈방옹시의 운을 차하다(次放翁韻)〉 중 첫 번째 작품이다.

野翠無邊燕掠平　　끝없는 푸른 들에 제비는 평지를 스쳐가고

반드시 육유 차운시가 들어 있다. 예를 들면, 용재 이언우의 문집에는 구안실이나 당시 일과로 육유 차운시가 많이 수록되어 있다.

33) 嚴修, 앞의 책, 58~61쪽 참조.

www.kci.go.kr

槐薰遲放午來晴　회화나무 향기 더디 갠 낮에 풍기는구나
空山五月斧斤絕　오월이라 빈 산에 도끼질 소리 끊어졌고
深巷數家機杼鳴　깊은 골목 몇 집에선 베 짜는 소리 울리네
健僕最憎當晝睡　건장한 노복이 낮잠 자는 건 가장 싫고
弱牛可念借鄰耕　약한 소 이웃이 발갈이에 빌려갈까 염려스럽네
匏樽盛酒時時過　바가지 잔에 술 담아 때때로 내게 들러 주니
許汝村農任喚卿　그대 농부에게 멋대로 자네라 부르도록 허락하노라[34]

황현은 한여름 오월의 농촌 풍경과 일상생활을 묘사하고 있다. 수련에서는 들판을 달아가는 제비와 향기로운 회화나무가 농촌의 한가로움을 드러내고 있다. 함련을 보면 은은히 들리는 도끼 소리와 베 짜는 소리에서 오월 한낮 인적이 끊긴 시골 마을의 한적함이 느껴진다. 시의 후반에서 한가로운 일상이라 노복도 별달리 할 일이 없어 쉬고 있는 듯한데, 건강한 일꾼이 일 없이 쉬는 것이 마땅하지 않아 보인다. 우리 집 일꾼은 한가로운데 행여 이웃집 농부가 밭갈이에 소를 빌려갈까 염려스럽기도 하다. 그러나 이러한 옹색했던 마음도 농부가 때때로 건네는 술 한 잔에 풀어지고 호탕하게 친구의 자리를 허락하고 있다. 향촌의 한가로운 일상에 대한 소박한 표현에서 향촌 생활의 여유와 향민들에 대한 따스한 애정과 친근함이 절로 느껴진다. 농부에게 "자네"라는 호명을 허락할 만큼 황현이 향촌생활에 동화되어 있다. 향촌 생활에 대한 그의 즐거움과 흥을 잘 느낄 수 있다. 이러한 즐거움은 다음 시에서도 이어진다.

다음 시는 연작시 〈집으로 돌아와서 다시 육유 율시를 뽑아 여름 과제로 삼다(歸家復拈陸律爲夏課)〉 중 열네 번째 작품이다.

倚床時復繞欄行　책상에 의지하여 때때로 다시금 난간을 둘러서 가고
客至從嗔不出迎　손님이 와도 귀찮게 여기며 마중 나가지 않네
枕下幽泉終夜咽　침상아래 깊은 샘물 밤새 흐르고
樹頭初月配星明　나무 끝 초승달은 별과 짝하며 밝게 빛나네

34) 黃玹, 〈次放翁韻〉 제1수, 『梅泉全集』 卷1, 139쪽.

www.kci.go.kr

千羣蚊合雷殿壁　많은 모기떼 모여들어 전각 벽에 우레 소리 나고
萬顆螢團火綴城　수많은 개똥벌레 몽쳐 빛으로 성을 장식하네
難道窮居無一樂　궁벽하게 살아도 전혀 즐거움이 없다고 말하기 어려우니
臥聞兒子咏詩聲　누워 어린 아이 시 읊는 소리 들을 수 있네[35]

향촌의 고적하고 한가로운 즐거움에 빠져서 살다보니 찾아오는 손님이 마냥 반갑지만은 않다. 수련에서는 이러한 황현의 속마음이 드러나고 있다. 함련과 경련에서는 밤새 흐르는 샘물과 모기 소리, 은은한 달빛과 반딧불로 빛나는 마을 등 아름다운 향촌의 밤 풍경이 청각과 시각을 자극하며 감각적으로 잘 묘사되어 있다. 그런데 이러한 궁벽한 시골 생활의 즐거움을 더욱 배가시키는 것이 있으니 바로 아이들의 글을 읽는 소리이다. 아이의 시를 읊은 소리에서 즐거움을 찾는 데서 향촌의 일상에 만족하는 촌로가 아닌 시인으로서 황현의 면모를 확인할 수 있다. 황현은 소박한 일상 중에도 시인으로서 자신의 위치를 전혀 잊지 않고 있는 것이다.

한편 황현에게 향촌이 긍정적인 공간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지식인으로서 자신에 대한 성찰을 게을리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음 시에서 황현의 이러한 모습을 잘 살필 수 있다.

禾麻相續野紛然　벼논 삼밭 서로 이어져 들판은 어지러운데
岸岸黃流泓泓煙　언덕마다 누런 흐름 갈라지는 연기와 같네
木實齊成豐驗最　나무 열매 주렁주렁 익어 최고 풍년 조짐이고
蟄蟲高徙雨徵先　숨은 벌레 높이 올라감은 비가 올 징조일세
著書自秘千金帚　글 지은 것은 스스로 천금추처럼 비장하고
嗜古翻尋九府錢　옛것 좋아해 도리어 구부전을 찾네
淸晝下簾閒點易　대낮에 발 내리고 한가히 주역에 점을 치니
君平不怨世吾捐　군평은 세상이 날 버려도 원망 안 했었지[36]

35) 黃玹, 〈歸家復拈陸律爲夏課〉 제14수, 『梅泉全集』 卷1, 560~561쪽.
36) 黃玹, 〈次放翁韻〉 제13수, 『梅泉全集』 卷1, 142쪽.

www.kci.go.kr

수련과 함련에서는 오곡이 익어가는 가을날의 풍성한 들판의 풍경을 그려내고 있다. 이러한 풍요로움에 한껏 취해도 될 듯한데 오히려 황현은 자신의 일상을 살피는 데로 시선을 돌리고 있다. 경련에서 비록 부족할지라도 자신의 글을 '천금추(千金帚)'[37]처럼 소중히 간직하고 주나라 금고인 '구부전(九府錢)'[38]처럼 방대한 학문의 길에 천착하는 지식인 황현의 모습이 잘 드러난다. 지식인 황현의 실천적 면모는 미련에서 촉나라 군평의 고사를 통해 강학에 매진하는 것으로 이어지고 있다. 군평은 촉나라 엄준(嚴遵)의 호로서, 엄군평은 매일 점을 쳐서 하루를 생활할 정도의 돈만 벌면 점집을 닫고 아이들에게 『노자』를 가르쳤다고 한다.[39] 엄군평이 그랬던 것처럼 황현의 검박한 생활은 후학을 가르치는 데 부족함이 없다. 한미한 향촌 생활 속에서도 자긍심을 잃지 않고 불필요한 풍요로움을 좇기보다 글을 읽고 후학을 양성하는 데 힘을 쏟고자 하는 황현의 지식인적 면모를 읽을 수 있다.

3.2. 사대부적 이상의 좌절과 자조

황현은 어지러운 정치 현실에 대한 실망 때문에 일찍이 출사를 포기하고 향촌 생활을 택하였다. 앞에서 한가롭고 소박한 향촌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황현의 모습을 살필 수 있었다. 그런데 이러한 평화로운 일상도 균열이 일어날 때가 종종 있는데, 문득 '대부(大夫)'로서의 좌절을 자각할 때이다.

葱麥三時飽反飢	세 끼 푸른 보리밥을 먹어도 도리어 배고파라
甚無聊賴且安之	심심하기 그지없어도 그냥 편히 살아가네

37) 漢나라 劉珍의 『東觀漢記·光武帝記』에서 "자기 집의 낡은 빗자루를 천금으로 여겨 소중히 간직한다.(家有敝帚, 享之千金)"라는 고사에서 나오는 말이다. 후에 "敝帚千金"이라는 말로 비록 좋지 않은 것이지만 자기 것은 귀중하게 여긴다는 뜻을 말한다.

38) 구부전(九府錢)은 주나라 때 돈을 관장한 구부의 동전을 말하는 것인데 여기서 학문이나 문학 등 방대한 영역을 의미한 것이다. 황현, 임정기 옮김, 『매천집1』, 한국고전번역원, 2008, 413~414쪽, 각주 254번 참조.

39) 황현, 임정기 옮김, 위의 책, 414쪽 각주 255번 참조.

www.kci.go.kr

不才自是靑雲遠　재주 없으니 벼슬길은 절로 멀기만 하고
善病猶能白髮遲　잘 아픈데도 오히려 흰머리가 더디 나네
京國煙塵正迢遞　경성의 연기와 먼지는 한창 멀리 있는데
江鄕風雨此支離　강가 향리의 비바람이 이렇게도 지루하구나
緇袍佩玉何須較　헌 솜옷과 패옥을 어찌 비교할 필요가 있겠는가?
不作尋常失意悲　예사로운 실의의 슬픔 따위를 짓지 않노라[40]

위의 시는 〈방옹시의 운을 차하다(次放翁韻)〉 중 스물한 번째 작품이다. 보리밥으로 연명하고 딱히 별 일도 일어나지 않은 궁벽한 시골이지만 그 평화로움 덕분에 그럭저럭 생활할 만하다. 벼슬길에서 멀어져 있으니 자주 병이 나도 오히려 흰머리는 덜 생기는 것 같다. 별로 거슬린 게 없는 일상이다. 그런데도 황현에게 항시 불어오던 강바람이 시원하기는커녕 지루하기만 하다. 바로 서울에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다. 만약 황현이 서울 조정에서 패옥을 차는 관료였다면 한가로운 강바람에 몸을 맡기는 대신 나랏일로 분주했을 것이다. 이때의 황현은 중앙 정치에서 괴리된 자신의 처지에 실의할 것 같은데 이러한 슬픔 따위를 짓자 않다고 표현하였다. 스스로 버슬을 포기하는 자신을 자조하는 듯하다.

다음 시는 〈집으로 돌아와서 다시 육유 율시를 뽑아 여름 과제로 삼다(歸家復拈陸律爲夏課)〉 중 스물여섯 번째 작품이다.

有時剝啄但隣翁　때로는 문 두드리는 소리 단지 이웃 늙은이일 뿐이고
積雨孤村絕澗東　여러 날 내린 비에 외딴 마을은 골짜기 동쪽으로 끊기네
秋意暫生朝夕際　아침저녁 잠시 가을다운 느낌이 생기고
人聲時在水雲中　사람 소리 때때로 물과 구름 사이에 울리네
天心仁愛蝗餘熟　천의는 자애로워 식량 작물이 익어가고
世事嘗騰酒後空　술 먹은 후 모호한 세상일은 부질없네
四十爲郎成底事　사십이나 먹은 사내 무슨 일을 이루었는가

40) 黃玹, 〈次放翁韻〉 제21수, 『梅泉全集』 卷1, 145쪽.

www.kci.go.kr

守玄初志愧楊雄　고결을 지키며 초지일관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양웅에게 부끄럽네[41]

때때로 찾아오는 사람이라야 이웃집 늙은이만 있을 뿐이고 심지어 비까지 많이 내려 길마저 끊겼다고 한다. 번잡한 세상과 멀리 떨어져 있는 황현의 심리적 거리를 느낄 수 있다. 그렇게 인적이 드문 골짜기에도 가을이 와서 황재(蝗災) 없이 수확할 만한 곡식은 잘 익었으니 가을걷이 후에 한 잔을 한 모양이다. 적당히 오른 취기는 황현으로 하여금 향촌 서생으로서의 삶을 반추하게 한다. 그런데 미련에서 이미 사십이나 되었는데도 아직 이룬 일이 없다는 말에서 황현의 깊은 자조와 괴로움이 드러난다. 비록 출사는 하지 않았지만 선비로서 고결한 자세를 갖추고 흐트러짐 없이 살아왔다고 여겼는데 돌이켜보니 자신이 없는 것이다. 지식인으로서 황현의 고뇌와 회한을 읽을 수 있다.

3.3. 비판적 현실 인식과 우국적 정서 토로

황현은 일찍이 관직에 대한 뜻을 버리고 구안실에 생활하여 강학과 시작 활동을 하며 소일하였으나, 당시의 혼란한 정치 현실을 냉철하게 주시하고 있었다. 황현은 부패한 왕실과 권력층의 비리를 신랄히 비판하면서 지식인으로서 시대적 소명을 다하려고 하였다. 다음 시는 황현의 〈방옹시의 운을 차하다(次放翁韻)〉 중 스물 번째 작품이다.

雨瀑雷硠洞府寬　비 내린 후의 폭포 소리 우레 같고 동부는 널찍한데
赬桐吐蕊日闌干　백일홍은 꽃술을 토하고 해는 기울어 가네
數椽遮莫如懸磬　두어 서까래는 경쇠를 걸어 놓은 것 같으나
一事差强不夢棺　한 가지 흡족한 일은 널을 꿈꾸지 않은 것이네
託意仙經求煮石　선경에 뜻을 의탁하여 돌을 삶은 방법을 구하는데
感時皇路撫和鑾　어가의 쟁쟁한 방울소리에서 국운을 느껴지네

41) 黃玹, 〈歸家復拈陸律爲夏課〉 제26수, 『梅泉全集』 卷1, 564쪽.

www.kci.go.kr

風窓忘却三庚熱　바람 부는 창가에서 삼복의 더위를 잊고
今古蕭條冷眼看　금석(今昔)의 불황을 냉정하게 살펴보고 있네[42]

수련에서는 비가 내린 후에 석양이 지는 그림 같은 향촌 풍경이 그려지고 있다. 이어 적막함이 느껴질 정도로 빈한한 살림이지만 '몽관(夢棺)'[43]하지 않은 것은 만족할 만하다고 한다. '몽관'은 부패한 벼슬살이를 의미하는데, 황현은 벼슬하지 않은 기꺼움을 드러내는 한편 부패한 관료들을 에둘러 비판하고 있다. 경련에서 황현 자신은 향촌에서 마치 신선처럼 도가적 삶을 지향하려 하지만 어가(御駕)의 방울소리가 가까이에서 울려 현실을 외면할 수 없음을 토로한다. 그가 목도한 시국은 삼복의 더위까지 잊고 골몰할 만큼 위태롭기만 하다. 고금의 역사를 통해 현실적 문제를 직시하고자 하는 냉정한 지식인으로서 황현의 면모를 확인할 수 있다.

다음 시는 황현의 〈방옹시의 운을 차하다(次放翁韻)〉 중 여섯 번째 작품이다. 여기서는 바르지 못한 관료들에 대해 보다 직설적인 비판의 날을 세우고 있다.

放達猶難解障囚　마음이 활달해도 마음의 속박을 풀기 어렵고
文章終是類俳優　문장은 마침내 남 웃기는 배우와 같네
卷懷禮樂三千牘　삼천독이나 되는 예악은 말아 속에 품고
醉倒江湖四十秋　강호에 취해 지낸 지는 사십 년이 세월이네
差可善人乘下澤　그럭저럭 하택거를 타는 선인은 가능해도
敢要高士在南州　남주의 고사야 감히 바랄 수 있겠는가

42) 黃玹, 〈次放翁韻〉 제20수, 『梅泉全集』 卷1, 144쪽.
43) 진(晉)나라 때 어떤 사람이 은호(殷浩)에게 묻기를 "어찌하여 벼슬자리를 얻게 될 때에는 널을 꿈꾸고, 재물을 얻게 될 때에는 똥을 꿈꾸는 것인가?(何以將得位而夢棺器 將得財而夢矢穢)"라고 하자, 은호가 말하기를 "벼슬은 본디 썩은 냄새가 나는 것이기 때문에 벼슬을 얻게 될 때에는 널의 시체를 꿈꾸게 되고, 재물은 본디 똥거름 준 흙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재물을 얻게 될 때에는 똥을 꿈꾸게 되는 것이다(官本是臭腐 所以將得而夢棺屍 財本是糞土 所以將得而夢穢汚)"라고 하였다(황현, 임정기 옮김, 앞의 책, 418쪽 각주 266번 참조).

www.kci.go.kr

孤燈漆室愁如海　외로운 등불 아래 칠실 고을의 근심 바다 같은데
時輩同歸肉食謀　시배들은 다들 육식자의 꾀만 해대네[44]

수련을 보면 지식인으로서 답답한 마음이 잘 드러난다. 겉으로 활달한 척하지만 울적한 마음은 여전히 풀리지 않고, 좋은 문장이라는 주변의 칭송도 부질없어 보인다. 학문에 매진해서 치세의 법도를 익혔으나 강호에서는 쓸모가 없고 세월만 흘러 버렸다. 경련에서는 현인[45]으로서 찬송은 생각하지 못하고 그저 하택거나 타는 향촌의 처사 정도면 만족하겠다는 겸손한 말을 하고 있지만, 미련을 보면 향촌 처사의 일갈로 보기에는 매우 신랄하다. 황현은 나라의 안위를 걱정하는 것은 분수에 맞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고관대작의 자리만을 바라며 사욕을 취하는 이름난 관료들을 싸잡아 비판하고 있다.

황현의 근심과 걱정은 기우가 아니었던 듯하다. 다음 시를 보면 점점 더 위태로워지는 국가에 대한 황현의 우려가 진하게 드러나다.

淸夜沉沉不爇油　맑은 밤 고요하여 등불도 켜지 않는데
室中虛白寄天遊　빈 방에 흰 빛이 생겨 자연에 몸을 맡길 수 있네
榮期老去猶三樂　영계기는 늙어서도 오히려 삼락에 만족하는데
平子詩成漫四愁　평자는 사수시를 지어 걱정이 넘치네
峽月籠霞晨復暈　골짜기의 달은 노을에 싸여 새벽에 다시 무리지고
江風引雨晩來遒　강바람은 비를 끌어와 밤에 더 세지네
最憐十畝箕箠笋　열 묘의 왕대 죽순을 가장 어여삐 여겨
種在今春已掩樓　올 봄에 심었는데 벌써 지붕을 덮었네[46]

위의 시는 〈방옹시의 운을 차하다(次放翁韻)〉 중 여덟 번째 시이다. 수련에

44) 黃玹, 〈次放翁韻〉 제6수, 『梅泉全集』 卷1, 140쪽.
45) 여기서 현인은 남주(南州) 고사(高士)를 가리킨 것인데 그는 동한(東漢)시기의 은사 서치(徐穉)이고 그가 일생 동안 벼슬을 나가지 않는데 욕심이 없고 마음이 깨끗하여 명리를 좇지 않는다.
46) 黃玹, 〈次放翁韻〉 제8수, 『梅泉全集』 卷1, 141쪽.

www.kci.go.kr

서는 장자(莊子)의 『인간세(人間世)』[47]를 인용하여 사소한 것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분방한 삶에 대한 희구가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바로 이어 영계기[48]의 안빈낙도 대신 나라의 안위에 대해 근심을 끊임없이 토로한 장형[平子][49]을 통해 자신의 시름을 표현하고 있다. 황현은 경련에서는 이러한 우려와 근심을 생생히 토해낸다. 여기서 달무리는 곧 비가 내릴 징조인데 강바람과 함께 밤에 세찬 비가 쏟아진다. 비를 몰고 오는 달무리는 조선에 엄습해 오는 불온한 기운이다. 바람과 함께 불어 닥친 세찬 비바람은 나라를 뒤흔들 만큼 큰 위험으로 볼 수 있다. 나라의 안위가 풍전등화일 때 황현은 어떠한 처세를 하였을까? 그가 지붕을 덮은 울창한 대나무로 대답하고 있다. 사시사철 한 순간도 푸르름을 잃지 않는 대나무는 곧은 절개를 상징한다. 이는 점점 쇠락해지는 나라에 충성을 다하겠다는 굳은 다짐인 것이다.

4. 황현의 육유 차운시의 문학적 의의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황현의 육유 차운시 가운데 육유의 재촉 시기 작품에 대한 차운은 무려 50수를 차지한다. 이 재촉 시기는 육유의 일생을 통틀어 사상적인 면이나 문학적인 면에서 이정표가 되는 시기인데, 특히 48세 때 금과 대치했던 최전선인 남정(南鄭)에 종군한 기간은 비록 짧지만 그의 정치·문학

47) 『莊子·人間世』에 이르기를, "빈 방 안에는 흰빛이 생기고 거기에는 좋은 징조가 깃든다.(虛室生白 吉祥止止)" 즉 마음이 청허(淸虛)하여 욕심이 없으면 도심(道心)이 절로 생겨나는 것을 의미한다(황현, 임정기 옮김, 앞의 책, 410쪽 각주 245번 참조).

48) 영기(榮期)는 춘추시대의 은사로 90세 때 공자(孔子)를 만나 자기 인생의 즐거움 세 가지(榮期三樂)를 말했다. 이는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 남자로 태어나는 것, 90세까지 사는 것으로 후세에 만족함을 알면 항상 즐겁다는 것을 가리킨다(『孔子家語六本』, 天生萬物惟人爲貴 吾得爲人 一樂也 男尊女卑 吾得爲男 二樂也 人生有不免襁褓者 吾行年九十五矣 三樂也)-황현, 임정기 옮김, 앞의 책, 410쪽 각주 246번 참조).

49) 장형은 허강왕이 교만하고 사치하여 법도를 준행하지 않는 데다, 시국도 몹시 불안함을 근심한 나머지 〈사수시(四愁詩)〉를 지어서 스스로 우려와 고민을 토로한다(『後漢書 卷59 張衡列傳』)-황현, 임정기 옮김, 앞의 책, 410쪽 각주 246번 참조).

www.kci.go.kr

적 신념을 정립하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남정 종군을 통하여 육유는 비로소 시의 본질과 사회적 기능에 대하여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 이후 그의 시는 점차 강서시파의 영향에서 벗어나는 대신 조국에 대한 근심과 개인적 쇠락에 대한 시름이 주요한 시적 소재를 이루었다.[50] 즉 육유는 46세 이전까지는 강서시파의 영향을 받아 시문을 단련하는 기교를 중시했는데 남정 종군경험을 계기로 호방하고 우국적인 시관을 정립하여 조국애의 열정과 호탕한 기개를 표출하는 우국시를 주로 창작하였다. 그런가하면 한편으로는 그러한 기상이 지속되지 못한 데에 대한 좌절과 전망의 부재에 따른 울분과 비탄의 시도 남기고 있다.

황현이 차운한 육유의 원운시 가운데 이러한 우국적, 자조적 경향의 시로 분류되는 것이 34수나 된다. 이를 통해 볼 때 중앙정치에서 멀어졌으나 애국적 충정을 잃지 않고, 한편으로는 관료로서 이상이 좌절된 육유의 재촉 시기 경험에 황현이 크게 공명하였음을 알 수 있다. 곧, 황현이 육유의 시를 차운한 까닭은 단순히 학시(學詩)를 위한 방편으로 삼기 위해서가 아니라, 시공을 뛰어 넘은 정서적 유대에 기반한 것이다. 다음 시는 황현의 〈방옹시의 운을 차하다(次放翁韻)〉 중 스물한 번째 작품에 대한 원운인 〈달 아래 취해서 짓다(月下醉題)〉이다.

黃鵠飛鳴未免饑	황곡이 울면서 날아도 아직 굶주림을 면하지 못하고
此身自笑欲何之	이 몸 스스로 조소하노니 어찌 해야 할까
閉門種菜英雄老	문을 닫고 채소를 심으며 영웅이은 늙어 가고
彈鋏思魚富貴遲	칼자루 두드리면서 고기 잡을 생각하다 보니 부귀 이미 늦었구나
生擬入山隨李廣	살아 있을 때는 산으로 들어가 이광을 따르고
死當穿冢近要離	죽어서는 무덤을 뚫고 要離와 가까이 하고 싶다
壹樽強醉南樓月	남루의 달빛 아래 술 한 잔에 억지로 취하게 하니

50) 邱鳴皋, 『陸游評傳』, 匡亞明 主編, 『中國思想家評傳叢書』, 南京大學出版社, 2002, 140~143쪽 참조.

www.kci.go.kr

感慨長吟恐過悲　탄식하며 길게 읊조리니 아마도 크게 슬퍼하는 듯하네[51]

이 시에서 육유는 재능과 포부를 펼치고 싶으나 기회를 얻지 못함을 술로 달래면서 불우한 자신의 처지를 한탄한다. 이에 대한 황현의 차운시가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으려는 힘겨운 노력으로 끝맺고 있음을 생각해 볼 때, 서로 다른 이유로 중앙에서 멀어져 정치적 기회를 갖지 못하지만, 자조를 통하여 두 사람의 정서적 교감을 느낄 수 있다.

다음 시는 〈아플 때 술을 마시며 감정을 읊다(病酒述懷)〉이다. 이 시는 황현의 〈집으로 돌아와서 다시 육유 율시를 뽑아 여름 과제로 삼다(歸家復拈陸律爲夏課)〉 중 스물여섯 번째 작품의 원운시이다.

閑處天敎著放翁　한가한 곳에서 타고난 천성을 본받아 방옹이 되었고
草廬高臥笮橋東　작교 동쪽에 있는 초려에서 고상하게 누워다네
數莖白發悲秋後　구슬프고 쓸쓸한 가을 후에 백발을 세면서
一醆靑燈病酒中　외로운 푸르스름한 불빛 아래 술을 마셔 몹시 취하네
李廣射歸關月墮　이광이 활 잘 쏘는데 결국 관월에 빠지고
劉琨嘯罷塞雲空　유곤은 울부짖는 뒤 소리가 하늘과 구름에 차네
古人意氣憑君看　古人의 의기는 그대에 의해 보는데
不待功成固已雄　공을 아직 세우지 않아도 이미 영웅이 되었구나[52]

육유는 병에 걸렸으면서도 술을 마시며 근심을 털고자 하는 마음을 읊고 있다. 원대한 포부를 실현하지 못하면서 객지를 떠도는 자신에 대해 훌륭한 옛사람의 고사를 인용함으로써 아쉬움과 울분을 토로하고 있다. 황현의 차운시에서는 깊은 자조와 괴로움을 읊고 있는데, 육유 또한 포부를 이루지 못한 채 늙어감에 대한 울분을 토로하고 있다. 황현과 육유 모두 만족스럽지 못한 현실과 그곳에서 부유하는 자신에 대한 자조를 토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1) 陸游, 〈月下醉題〉, 『陸放翁全集』 中, 120쪽.
52) 陸游, 〈病酒述懷〉, 『陸放翁全集』 中, 143쪽.

www.kci.go.kr

病骨支離紗帽寬　병든 몸 수척하여 사모 또한 크고
孤臣萬裏客江幹　외로운 신하는 만 리 밖에서 강가 객의 신세로다
位卑未敢忘憂國　지위는 미천하나 감히 나라 걱정 잊을 수 없으니
事定猶須待闔棺　한 사람의 평가는 죽은 후를 가다려야 하리
天地神靈扶廟社　천지 신령이 종묘사직을 부지하니
京華父老望和鑾　낙양의 백성들은 황제의 수레만을 기다린다네
出師壹表通今古　〈출사표〉 이 한 편은 예나 지금이나 통하니
夜半挑燈更細看　한밤중에 등불 밝히고 다시 자세히 읽어 본다네[53]

이 시는 황현의 〈방옹시의 운을 차하다(次放翁韻)〉 중 스무 번째 작품의 원운시 〈아플 때 일어나서 감회를 쓰다(病起書懷)〉이다. 육유가 성도(成都)에 있을 때 쓴 애국적인 시이다. 여기서 육유는 건강이 나빠지고 객지를 전전하는 신세가 되었지만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만큼은 변함이 없음을 말하고 있다. 아마도 황현은 육유의 시에서 정치의 중심에서 멀어져 있음에도 변하지 않는 충정을 읽어내고, 자신 또한 서울에서 멀리 떨어져 궁벽한 시골에서 머물고 있지만 나라에 대한 충절은 변하지 않음을 드러내고 싶어 한 듯하다.

다음 시는 〈방옹시의 운을 차하다(次放翁韻)〉 중 여섯 번째 작품의 원운인 〈황주(黃州)〉이다.

局促常悲類楚囚　몸은 움츠러드니 늘 서글퍼서 초나라의 죄수 같고
遷流還嘆學齊優　떠돌아다니니 제나라의 배우와 같아 도리어 탄식하네
江聲不盡英雄恨　강물소리에 영웅의 한이 끝이 없고
天意無私草木秋　하늘의 뜻은 사심이 없지만 초목은 생기가 없네
萬裏羈愁添白發　객지에서 느끼는 만 리의 시름에 백발만을 더하는데
壹帆寒日過黃州　추운 날에 돛배 하나 타고 황주를 지나네
君看赤壁終陳跡　그대가 보는 적벽은 결국 유적일 뿐이고
生子何須似仲謀　아이를 낳으면 어찌 꼭 손권과 같아야만 하리?[54]

53) 陸游, 〈病起書懷〉, 『陸放翁全集』 中, 116쪽.
54) 陸游, 〈黃州〉, 『陸放翁全集』 中, 24쪽.

www.kci.go.kr

이 시에서는 육유가 옛날을 생각하며 뜻을 이루지 못한 채 시간만 흘러가고 있는 현실과 자신의 불우한 처지를 탄식하고 있다. 특히 미련을 보면 적벽은 결국 유적으로서의 의미밖에 남지 않은 것처럼 능력을 갖추고 있어도 등용되지 못하는 현실을 역설적으로 비판하였다. 황현 또한 차운시에서 부패한 관료사회를 직설적으로 비판하고 있는데, 두 사람의 비슷한 처지와 그에 따른 우울한 감성을 함께 느낄 수 있다.

桃花如燒酒如油　복숭아꽃이 붉게 피어 나고 술은 기름지니
緩轡郊原當出遊　교외의 들판에서 고삐를 늦추고 마침 노닐었다네
微倦放教成午夢　조금 피곤하여 낮잠이 오는데
宿醒留得伴春愁　숙취가 봄날의 싱숭생숭한 마음을 동반하네
遠途始悟乾坤大　멀리 나와 처음으로 하늘과 땅이 큰 것을 깨닫고
晩節偏驚歲月遒　만년에 문득 세월이 가는 것에 놀리네
記取淸明果州路　청명 때 과주를 지난 길을 기억하니
半天高柳小靑樓　하늘 한가운데 높은 버들과 작은 청루가 있네[55]

이 시는 〈버들 숲에 있는 작은 주점(柳林酒家小樓)〉이라는 작품이다. 황현의 〈방옹시의 운을 차하다(次放翁韻)〉 중 여덟 번째 작품의 원운이다. 육유가 부임지로 가던 중에 과주(果州) 유림(柳林)의 한 주점에 들러 피로한 심신을 달래며 쓴 시이다. 이때 육유는 금나라와의 전쟁에 참전하였는데, 이 시에서는 그가 위기에 빠진 조국을 위해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는 흥분이 잘 드러난다. 황현과 육유는 향촌 지식인과 관료로서 그 처지는 달랐으나 국가의 위기 앞에 물러서지 않는 기개만은 상당히 닮아 있다. 황현의 차운시에서도 원운의 이러한 호방한 기풍이 잘 드러난다.

지금까지 살펴본 시들을 통하여 황현이 육유의 시를 차운한 요인의 중요한 일단을 찾을 수 있었다. 황현은 과거에 합격하였으나 부패한 당시의 관료사회

55) 陸游, 〈柳林酒家小樓〉, 『陸放翁全集』 中, 41~42쪽.

www.kci.go.kr

와 혼란한 정세로 인하여 출사를 포기하였다. 이때 육유시를 읽으면서 스스로를 위로한 것이다. 학문적 능력과 시적 재능이 있음에도 정치적 기회를 얻지 못했던 육유의 처지에 공감한 것이다. 두 사람 간의 이러한 정서적 교감이 형성되어 육유의 많은 재촉 시기 작품을 차운한 것으로 짐작해 볼 수 있다.

그 동안 황현의 중국 문인 차운시에 대한 연구는 그 작품의 주제나 경향성에 대해서는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나, 이와 같이 시인 간의 정서적 유대, 감성적 공감의 측면에서 차운시를 검토한 경우는 드물었다. 이러한 방식으로 황현의 다양한 중국 문인 차운시를 살핀다면 시공의 경계를 넘나드는 차운시만의 독특한 문학적 특성을 살필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5. 맺음말

본고에서는 황현의 육유 차운시의 현황, 주제 양상 및 문학적 의의를 살펴보았다. 차운시를 다루기 앞서 황현의 육유에 대한 문학적 인식을 살펴보았는데, 이를 통하여 황현이 현란한 언어적 기교와 수사 없이 시의를 개성적으로 표현하는 육유의 작시 방식을 추구하고 특히 웅걸한 기상의 육유시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다음 육유시에 대한 차운 현황은 칠언율시가 많은 점, 초학자의 시작 수련에서 많이 활용하는 점, 육유의 재촉시기의 시를 많이 차운하는 점에서 살펴보았다. 그리고 황현의 육유 차운시 주제 양상은 향촌 생활의 여유와 한적, 사대부적 이상의 좌절과 자조, 비판적 현실 인식과 우국적 정서 토로 세 부분을 나누어 고찰하였다. 이를 통하여 황현의 작시 심경 변화를 또한 엿볼 수 있다. 마지막 4장에서는 황현의 차운시와 육유의 원운시를 비교하면서 황현이 육유시를 차운할 때 두 사람 간의 정서적 유대, 감성적 공감의 측면에서 검토해 보았다. 황현은 육유시의 내용을 공감하여 육유의 우국적이고 울분함을 토로한 재촉 시기의 시를 차운함으로써, 자신이 중앙정치에서 멀어졌으나 애국적 충정을 잃지 않고 한편으로는 관료로서 이상이 좌절

www.kci.go.kr

된 심경을 드러낸 것이다.

그러나 황현이 육유의 경험에 공감하고 여러 시를 차운했으나 원운을 그대로 답습한 것은 아니다. 황현은 육유시의 장점을 배우면서도 자신의 경험을 훌륭히 형상화함으로써 황현만의 독창적인 시세계를 구축하였다.

본 연구는 황현시를 연구하는 데에 그의 육유 차운시를 다룸으로써 보다 다각적으로 황현시에 접근하려고 하였다. 또한 서로 다른 시대와 공간을 살아가던 황현과 육유의 시적 교류를 연구함으로써 나아가 한·중 한시의 관련 양상을 탐색하는 데 한 방편을 제공했으리라 기대한다.

www.kci.go.kr

참고문헌

『梅泉全集』, 전주대학교 호남학연구소, 1984.
김영붕 역, 『역주 황매천시집(속집)』, 보고사, 2010.
김영붕 역, 『역주 황매천시집(후집)』, 보고사, 2010.
김영붕・이병기 역, 『역주 매천 황현 시집』(상·중·하), 보고사, 2007.
김정환, 『梅泉詩派 硏究』, 경인문화사, 2007.
주기평, 『陸游詩歌硏究』, 역락출판사, 2010.
최승효, 『黃梅泉 및 關聯人士 文墨萃編』(上卷), 未來文化社, 1985.
황현, 임정기 옮김, 『매천집1』, 한국고전번역원, 2008.
陸游, 『劍南詩藁』, 『陸放翁全集』(中), 中國書店, 1997.
邱鳴皋, 『陸游評傳』, 匡亞明 主編, 『中國思想家評傳叢書』, 南京大學出版社, 2002.
嚴修, 『陸游詩集導讀』, 巴蜀書社, 1996.
嚴羽, 김해명·이우정 옮김, 『滄浪詩話』, 한국학술진흥재단, 2001.
蔣和森, "陸游"條, 『中大百科全書·中國文學卷』, 中國大百科全書出版社, 1986.
조익, 송용준 역해, 『甌北詩話』, 서울대학교출판부, 2009.

기태완, 「매천시 연구-시의 수련과 영향관계 및 그 풍격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8.
김영붕, 「黃梅泉 詩文學 硏究」, 전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4.
이병기, 「황매천시 연구」,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3.
장람, 「梅泉 黃玹의 中國文人 次韻詩 연구」,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5.
장인진, 「조선조 문인의 육방옹시 수용에 대하여」, 『한문학연구』 제6집, 계명한문학회, 1990, 177~210쪽.
황수정, 「梅泉 黃玹의 詩文學 硏究」, 조선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

www.kci.go.kr

| Abstract |

A Study on Maecheon Hwang Hyun's Lu-You rhyme-borrowing poems

Zhang, Lan

This study focuses on the Chinese rhyme-borrowing poems of Maecheon, especially the rhyme-borrowing poems of Lu-You. Even though Maecheon wrote a lot of poems in his life, After examining his rhyme-borrowing poems, we can not only explore his cultivation process, but also better understand his poems' world. The main thrust of the discussion is as follows:

Through the analysis of relevant poems, we can see that Hwang Hyun didn't pursued gorgeous language skills and modification. On the contrary, he advocates the poetic expression of individual poetic Lu-You Style. In particular, admire the brute unrestrained Lu-You poetry.

There are three main characteristics through investigation. Frist of all, there are many seven-character poems. Second, many beginners in the exercise process will be applied. Finally, when Lu-You was relegated to the Shu(在蜀時期), he always used.

By analyzing Hwang Hyun's Lu-You rhyme-borrowing poems, we can see the leisure and traces of rural life everywhere. And also reflect the ideal of scholar-bureaucrat's frustration and self-deprecating mood, as well as the expression of realistic critical consciousness and reveal sentiment. However, Hwang Hyun was very enjoyed his casual, rustic country life.

But the seemingly peaceful life will be cracks, when he realized the ideals of the scholar-officials' frustration. Even so he was watched calmly chaotic political reality. He criticized the royal family and the power of corruption, while fulfilling the fate of the times as intellectuals. In the study of Hwang Hyun's Lu-You rhyme-borrowing poems, we can feel his mood's changes.

And then I focus on the poems' rhyme of Lu-You when he was in the Shu(在蜀時期) in Hwang Hyun's Lu-You rhyme-borrowing poems. I also compared rhyme-borrowing poem and original poem to discusses the tendency of his rhyme. First of all, it is important to understand the meaning to Lu-You when he was in the period of Sichuan. By this way, we can

www.kci.go.kr

understand the resonance between Huang and Lu-You's poems. In my opinion, Hwang Hyun, who has high literary attainments but lack of opportunities, was resonated with Lu-You, who also in the same situation. So it's easy to understand why Hwang Hyun liked borrowing rhyme from Lu-You's poems.

In the past Studies about Maecheon Hwang Hyun's Lu-You rhyme-borrowing poems, they analyzed the themes and tendencies and so on. However, it is very rare to discuss the rhyme-borrowing poems from the feelings of the poets. in this way, I hope we can explore the unique literary features of the rhyme-borrowing poems which span time and space.

Key words : Hwang Hyun, Lu-You, rhyme-borrowing poems, poetic expression, emotional empathy

투고일 : 2017년 1월 12일 **심사기간 :** 1월 23일 ~ 2월 12일 **게재확정일 :** 2월 13일

www.kci.go.kr

www.kci.go.kr